

1985~1994

세계 농약 메이저들의 10년간의 성(盛)과 쇠(衰)

지난 10년간 세계 농약산업을 이끌어온 농약메이저들간에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 기업간의 합병, 인수와 미국달러(US\$)를 기준으로 한 매출액 순위도 매우 심한 변화를 보여왔다. 최근 농약전문지인 <AGROW>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발간한 특집부록에서 19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세계 농약 메이저회사들의 매출액 순위를 분석, 그들의 성쇠(盛衰)를 평가에 놓았다. 전문을 번역 소개한다.

조사홍보부

azole)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독일마르크(DM)로 5% 판매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바이엘의 이미다클로프리는 91년 프랑스에서 처음 등록된 뒤 현재 세계 45개국에서 등록사용중에 있다. 바이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제중에 하나이다.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0년간 바이엘의 순위가 약간 떨어진 반면 시바는 농약시장에서 확고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시바는 90년 로체(Roche)사로부터 매그(Maag)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2위에서 1위로 뛰어올랐다. 94년도에 시바는 29억5천4백만 달러, 듀폰은 21억3천2백만 달러로 각각 세계 농약 매출 1,2위를 기록했다. 1위와 2위간의 매출액 차이는 무려 8억 달러를 넘고있다.

이는 일본의 최고 농약회사인 스미토모화학의 매출액보다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10년간 시바의 농약시장 점유율은 1% 떨어진 10.5%였다는 것이다.

확실한 1위자리 굳힌 시바

10년전인 1985년에 바이엘(Bayer)은 매출액 21억 8천만 달러(US\$)로 1위를 차지했었다. 당시 세계 농약시장의 규모는 1백60억 달러였는데 그중에 약 14%를 차지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이엘의 1위는 오래 가지 못했다. 87년에는 1위 자리가 시바(Ciba)로 넘어갔고 그 후로 1위 자리는 계속 바뀌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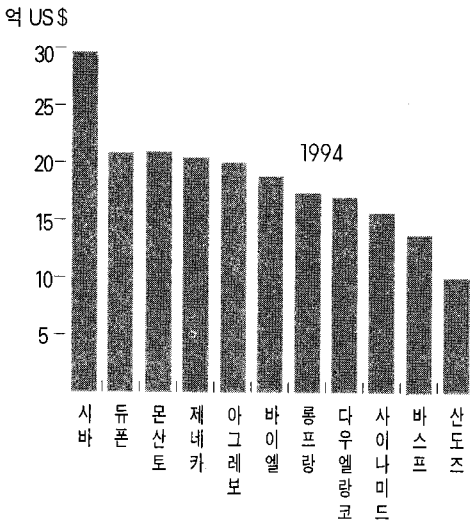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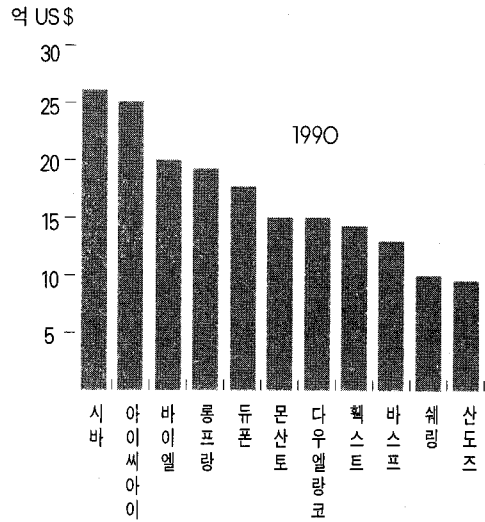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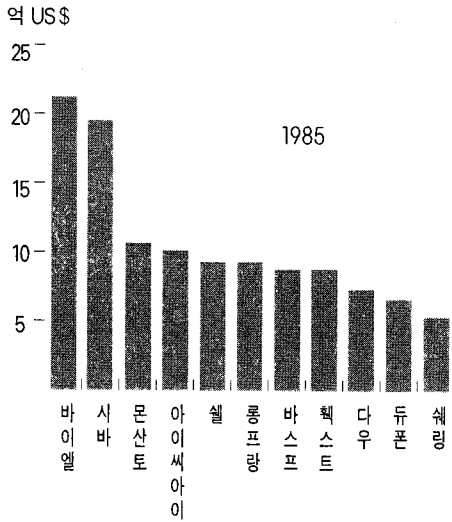
바이엘은 지난해 6위로 떨어졌으며 독일시장에서의 순위자리도 아그레보(AgrEvo)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그러나 바이엘은 그들의 농약매출이 95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살충제 이미다클로프리트(imidacloprid)와 살균제 테부코나졸(tebucon-

신제품 개발로 상승세 탄 듀폰

바이엘과 대조적으로 듀폰(Du Pont)은 환율에 힘입어 미화를 기준으로 한 순위는 상승되었다. 85년에 가까스로 10위를 기록했던 듀폰이 90년에는 4위로 올라서더니 94년에는 2위를 기록했다. 92년 유럽에서 매출의 절반을 판매한 바이엘은 유럽시장이 위축되면

농약 매출액 상위 11대 기업의 변화



장은 부분적으로는 86년 셸(Shell)사의 미국농약사업 부 인수에 기인한다. 반면 셸의 농약매출은 점점 감소하여 88년 10위, 90년 11위, 91년 13위에 그쳤다. 셸의 남은 농약주식은 93~94년에 걸쳐 사이나미드(Cyanamid)가 인수했고 94년 11월에는 다시 아메리카 홈 프로덕트(America Home Products)로 넘어갔다. 인수에 앞서 아메리카 홈 프로덕트는 농약 사업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농약사업부만 매각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았다.

그러나, 곧, 농약사업을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씨아이(ICI)는 93년에 농약, 종묘, 제약사업부를 합쳐 제네카(Zeneca)를 발족시키면서 농약업계를 떠났다. 85년에 4위를 기록했던 아이씨아이는 87년에 미국의 스토퍼(Stauffer)사를 인수했고 89년에는 2위로 올라섰다. 그러나 94년에 제네카는 환을 때문에 다시 4위로 주저앉았는데 95년도에는 과연 순위안에 들것인가를 의심하는 얘기도 들린다.

제약업체 인수를 위해 제네카가 농약 및 특수사업부를 매각할 것이라는 루머가 나돌아 금년 영국 주식시장에서 제네카의 주가가 곤두박질 쳤기 때문이다.

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듀폰은 농약판매지역이 전세계로 골고루 확산되었다. 듀폰의 지역별 농약판매 분포를 보면 미국지역이 40%, 유럽 중동 아프리카 세 지역을 합쳐 30%이다.

또 다른 상승요인은 82~92년 사이에 무려 14개의 신규농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업계 평균의 2배를 개발한 셈이다. 듀폰의 성

제네카는 이에 대해 일절 부인했다.

롱프랑의 매출은 2배로 증대

제네카와 마찬가지로 롱프랑(Rhone-Poulenc)은 지난 10년간 실질적인 기업인수 작업을 벌여왔다.

86년에 유니온 카바이드(Union Carbide)의 작물 보호사업부를, 89년에는 스웨덴의 케노가드(Keno Gard)사를 인수했다. 지난 10년간 롱프랑의 매출액은 2배로 늘어나 94년에는 18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니온 카바이드, 스토퍼, 쉘 등은 농약업계를 떠난 회사들이다. 85년에 9위를 기록했던 다우(Dow)는 89년 11월 엘라이릴리(Eil Lilly)와 60:40의 비율로 합병하면서 다우엘랑코(DowElanco)로 거듭났다.

그 뒤로 다우엘랑코의 매출은 계속 늘어났다.

바스프(BASF)도 합병 대상으로 예상된 회사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병되지 않고 있다. 바스프의 생각은 전면적인 합병이 아닌 프로젝트별 즉, 사업별 공동협력 방향이다.

최근 세계 농약메이저 회사간의 기업합병은 94년 독일의 헤스트(Hoechst)와 쉐링(Schering)이 60:40의 지분으로 합병하여 아그레보(AgrEvo)를 설립한 것이다.

94년 아그레보의 순위는 5위였다. 합병되면서부터 꾸준히 기업을 인수했다. 94년에 한국의 농약제조회사인 미성농약을 인수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큰 다국적 회사가 되었으며 독일의 복제품 생산회사인 스테페(Stefes)를 인수했다.

또한 95년 아그레보는 케미라(Kemira)의 사탕무용 제초제 사업을 인수했다. 케미라의 복제품들은 아그레보의 제초제와 경쟁했었다.

쉐링은 헤스트와 합병하기 전에 산도즈(Sandoz)와 기업합병을 고려했었다.

그러나 90년 양사간에 합병논의가 결렬된 후 합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산도즈는 85년 18위에서 94년에는 11위로 뛰어올랐다.

86년 산도즈는 벨시콜(Velsicol)의 농약사업부를 인수했고 일본의 SDS Biotech KK의 지분도 일부 갖게 됐다. 94년에는 아그롤린즈(Agrolinz)의 발아 후 제초제인 피리데이트(pyridate)를 인수했다.

그러나 제네카와 마찬가지로 산도즈가 농약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산도즈가 핵심적인 제약과 영양식품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95년에는 공업화학사업부를 매각했기 때문에 농약사업의 분리는 강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변함없는 3위의 몬산토

마지막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순위가 똑같은 회사가 있다. 몬산토(Monsanto)는 84년 3위였는데 91년에는 7위로 떨어졌다가 지난해에는 다시 3위로 올라섰다. 84년과 마찬가지로 몬산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농약인 글라이포세이트(glyphosate)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글라이포세이트의 물질특허기간은 이미 끝났고 복제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판매량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글라이포세이트에 저항성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몬산토가 여전히 3위를 차지하여 <AGROW>의 창간 20주년 기념호에서도 축하를 받을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다. **농약정보**